



즉시 배포용: 2022년 12월 28일

KATHY HOCHUL 주지사

HOCHUL 주지사, 개인이 하루 결혼식 주례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

일반인들이 뉴욕 주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하루짜리 주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(S.739A/A.6300A)

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'일일 지정'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는 법안(S.739A/A.6300A)에 서명하여 뉴욕 주에서 특정한 날에 단일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.

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결혼은 예비 배우자들이 선택한 주례자와 함께 해야 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. 이 법안이 법제화됨으로써, 우리는 주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모든 장벽을 없애고 친구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그들이 선택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공유하고 뉴욕 주 법에 따라 그들의 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"

법안(S.739A/A.6300A)은 특정 부부의 결혼을 엄숙하게 하기 위해 개인이 주례자로 지정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가정관계법을 개정합니다. 뉴욕은 결혼식을 위한 주요 목적지이고 이 법은 커플들이 이곳에서 축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.

Alessandra Biaggi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뉴욕의 커플들은 이제 그들의 친구나 가족에 의해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. 커플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날에 사랑하는 사람을 주례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우리 법을 최신화하기 위해 헌신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, 이 법안을 지지해 준 Sandy Galef 하원의원님과 제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."

Sandy Galef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친구나 가족에 의해 결혼에 참여한 뉴욕 시민들은 이 법안의 통과 덕분에 더 이상 그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친구, 가족, 사랑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유대나 정치적 신념에 관계 없이 이러한 의미 있는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지지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제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."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